<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방향>

202127899 안여름

Ⅰ. 서론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한다. 사랑의 대상은 누구든지, 뭐든지 될 수 있다. 누군가는 사랑에 기뻐하고 슬퍼한다. 누군가는 사랑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강렬하고 짜릿한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긋하고 잔잔한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사랑의 방식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 하지만, 모두가 안정적인 사랑을 하길 원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사랑에 있어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방법, 나와 상대방이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사랑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할 것이다. 수업시간에 6권의 책을 접하면서, 위대해 보이면서도 불안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책과 진정으로 사랑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책을 모두 읽게 되었다. 위대해 보이면서도 불안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책은 『위대한 개츠비』이고, 진정으로 사랑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책은 『향연』이었다. 향연 중에서도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해주는 에로스가 사랑이 향해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었다. 또한 소크라테스의 말과 개츠비가 보여주는 행동이 가장 상반되었다. 기말 페이퍼를 통하여 『위대한 개츠비』 속 개츠비가 보여주는 데이지를 향한 사랑이 『향연』의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어떻게 보일지 알아보고, 개츠비의 사랑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에로스를 닮았다면 개츠비의 삶이 어땠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사랑의 방향이 무엇인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려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데이지에 대한 개츠비의 사랑이 어떻게 보일지 설명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데이지를 향한 개츠비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개츠비는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명예를 얻어 데이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매일 밤 화려한 파티를 열고, 데이지가 살고 있는 집의 만 건너편에 있는 집을 구입한다. 개츠비와 데이지가 재회한 이후로 자신의 집에 자주 놀러 오는 데이지를 위해 원래 자신의 집에서 고용하던 하인을 자르고 입이 무거운 하인으로 바꾼다. 데이지의 잘못도 자신이 뒤집어쓰고,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거란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데이지의 연락만 기다린다. 이와 같이 데이지 한 사람만을 영원히 사랑하는 개츠비의 순애보적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츠비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위대해 보이기만 하는 개츠비의 사랑에도 불안감이 느껴진다. 개츠비는 데이지가 자신을 향해 보여주는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데이지에게 남편인 톰한테 가서 “난 당신을 결코 사랑한 적이 없어요.”(위대한 개츠비, p.165) 라고 말하기를 강요한다. 개츠비와 데이지처럼 서로에게 신뢰와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한쪽이 다른 한쪽을 강요하고 집착하는 사랑은 불안하며 언제 깨질지 모른다. 또한 데이지가 개츠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바람을 피고 있는 남편 때문에 반항심으로 개츠비를 만난다고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츠비와 데이지의 사랑은 더 불안해 보인다. 누군가에게는 위대해 보이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안해 보이기도 한 개츠비가 보여주는 사랑이 과연 소크라테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소크라테스는 데이지에 대한 개츠비의 사랑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본론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이해한 개츠비의 사랑을 보다 자세히 다뤄볼 것이다.

Ⅱ. 본론

먼저 소크라테스가 향연에서 이야기했던 에로스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소크라테스가 사유하고자 했던 사랑은 ‘아름다움’ 자체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이다. ‘아름다움’은 ‘좋음’이란 표현으로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에로스는 풍요의 신 포로스와 빈곤의 여신 페니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때로는 방편을 통해 지혜와 부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 때문에 결핍을 앓기도 한다. 에로스는 아름다움과 추함의 중간 상태에서 언제나 결핍을 가진 채 좋은 것을 쫓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욕망할 때, 욕망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좋은 것’을 욕망한다는 말은 원하는 것을 영원토록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말한다. 즉, 에로스는 ‘좋은 것’을 영원토록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다. 여기서 ‘좋은 것’은 명예, 돈, 권력, 육체적인 사랑 등을 말한다. 인간은 ‘좋은 것’ 중에 사랑이 영원하길 소망하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출산을 선택한다. 여기에는 육체적 출산, 정신적 출산 모두 해당한다. 하지만 인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에로스적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소망일 것이다. 에로스가 단지 좋은 것들에 대한 소유욕에 지나지 않는다면 에로스는 그저 덧없는 것에 대한 집착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좋은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좋음’, ‘아름다움’ 그 자체를 소망해야 한다고 말한다. ‘좋은 것’들은 영원히 좋은 것으로 남을 수 없다. ‘좋은 것’은 ‘좋음’ 자체로부터 ‘좋음’이라는 속성을 나눠 받은 덕분에 ‘좋은 것’일 수가 있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한때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결국엔 결핍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좋은 것’이 아닌 ‘좋음’ 자체를 쫓으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좋음’ 자체를 쫓는 방법으로는 정신적인 출산을 제시한다. 세상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 담론을 낳아야 한다는 말이다. 정신적인 탐구와 사색으로 정신적인 사랑을 하는 플라토닉 러브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에로스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소크라테스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육체적인 출산이 아니라 정신적인 출산을 제시한 이유는 “(정신의 자식을 낳은) 두 사람은 육체의 자식이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사귀고 더 굳은 우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건 그들이 육체의 자식보다 더 아름답고 더 불사적인 자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플라톤의 대화편, p.289), “정신의 아름다움이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더 소중하다. 육체의 아름다움이란 보잘 것 없다.”(플라톤의 대화편, p.290)를 인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에게 개츠비가 데이지를 향해 보여주는 사랑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일까? 개츠비가 보여주었던 행동과 소크라테스가 추구하고자 했던 사랑을 비교하여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유는 개츠비가 데이지를 사랑하는 목적에는 정신적인 탐구를 요하는 플라토닉 러브가 없다는 점이다. 개츠비는 데이지를 만나기 위해 불법적으로 돈, 명예, 권력을 얻었다. 데이지를 다시 만나는 목적도 진정한 사랑으로 보이기보다는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들였던 노력과 시간을 보상받고자 했던 행동으로 보인다. “그가 되돌리고 싶은 것이 데이지를 사랑하는 데 들어간, 그 자신에 대한 어떤 관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위대한 개츠비, p.166)라고 닉 캐러웨이가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개츠비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돈, 명예, 권력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좋은 것’에 해당한다. ‘좋은 것’을 넘어 ‘좋음’을 추구하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사랑인데, 개츠비는 ‘좋음’에 다가가지 못하고 ‘좋은 것’에만 머물러 자신의 노력을 보상받고 싶어한다. 개츠비가 데이지를 만나 하는 것은 집안을 구경하거나 피아노 연주를 하거나 개츠비의 요트를 타고 바다에서 노는 등의 오락적인 부분이 크다. 이것은 ‘아름다움’ 자체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신적 사색과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개츠비의 사랑을 위대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개츠비의 사랑은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추구하지 말아야 할 에로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에로스가 단지 ‘좋은 것’들에 대한 소유욕에 지나지 않는다면 에로스는 그저 덧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만일 우리가 ‘좋은 것’만을 추구하여 살아간다면 한때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결국 우리에게는 결핍이 생긴다고 말한다. 개츠비는 데이지의 사랑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데이지를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 개츠비는 데이지가 자신만을 사랑하길 원하여 남편 톰에게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개츠비는 데이지가 톰을 두고 자신의 곁으로 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데이지가 낸 교통사고도 자신의 잘못으로 뒤집어썼다. 데이지에 대한 사랑은 소유욕을 넘어 집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데이지와의 재회 후, 데이지와 함께 보냈던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은 잠깐이었다. 데이지를 향한 개츠비의 강요와 집착은 자신의 곁에서 데이지를 영영 떠나보내는 사랑의 결핍을 만들었고,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여 삶 자체가 결핍되었다. 따라서 개츠비의 사랑은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이다.

만약 개츠비의 사랑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에로스를 닮았다면 어땠을까? 개츠비가 소크라테스가 사유했던 사랑에 대해 이해하고 실행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개츠비가 취했을 행동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개츠비가 사랑하는 사람과 정신적 탐구와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데이지와 데이트를 할 때 교양 있는 활동을 많이 했을 것이다. 독서를 하고 책 내용에 대해서 토의하는 등의 가치 있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했을 것이다. 개츠비가 육체적인 사랑보다 정신적인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오랜 사랑이었던 데이지를 만난 이후에 사적으로 데이지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바람을 핀다는 것은 육체적인 사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한 개츠비라면 데이지를 만나는 것을 피했을 것이다. 만약에 데이지를 만나더라도 처음에 데이지와 재회하도록 도와준 닉 캐러웨이와 조던 베이커와 함께 책을 읽거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만날 것이다. 애초에 데이지와의 재회를 시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데이지와의 재회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데이지를 만나려고 매일 밤마다 파티를 열지도 않았을 것이고, 개츠비는 데이지가 톰과 결혼하여 이스트에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지 집의 만 건너편에 있는 집을 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개츠비가 자신의 집착으로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개츠비는 불법적으로 돈과 명예를 얻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데이지의 집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엄청난 우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제이 개츠비로서의 그의 장래가 아무리 찬란하다고 해도 그때는 아무런 경력이 없는 한낱 무일푼의 청년에 불과했으며, 당장이라도 눈에 띄지 않는 제복이 어깨에서 흘러내려 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위대한 개츠비, p.217)에서 알 수 있듯이 무일푼의 청년이 데이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데이지를 사랑함으로써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개츠비는 데이지의 사랑을 다시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명예를 얻는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개츠비가 소크라테스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자체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명예, 권력, 육체적인 사랑만을 쫓는 것이 아닌 ‘좋음’을 쫓기 위해 플라토닉 러브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개츠비는 데이지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 되었던 불법으로 밀주를 판매하거나 도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츠비는 원래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것이다. 데이지 대신에 세상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하는 담론을 만들어 갈수 있고, 정신적인 탐구와 사색을 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싶다.

Ⅲ. 결론

개츠비는 데이지의 사랑을 다시 얻기 위해 불법으로 밀주를 판매하거나 도박을 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고 명예와 권력도 손에 쥐었다. 매일 밤 성대한 파티를 열길 여러 차례, 개츠비는 데이지와 재회하게 되었다. 데이지는 바람을 피고 있던 남편 몰래 개츠비와 여러 번 만났고 개츠비는 데이지와 만나는 동안 마음이 더욱 커져갔다. 커진 개츠비의 마음은 데이지를 향한 집착으로 번져갔다.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하도록 강요했고 데이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데이지의 잘못을 뒤집어썼다. 이런 개츠비의 행동은 데이지에게는 어쩌면 큰 부담이었을지도 모른다. 데이지는 개츠비의 곁에서 떠나 남편과 함께 이스트에그를 떠났고 개츠비가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윌슨의 손에 개츠비는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개츠비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난다. 『위대한 개츠비』의 내용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가 『향연』 속에서 이야기한 에로스는 다음과 같다. 에로스가 ‘좋은 것’들에 대한 소유욕에 지나지 않으면 에로스는 그저 덧없는 것에 대한 집착에 불과하고 ‘좋은 것’만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한때는 풍요로울지라도 나중에는 결국 결핍이 생긴다.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세상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대화로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다. 사랑에 있어서 육체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통해 배운 것은 정신적인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변의 커플들을 보면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커플이 더 오래 만나는 경향이 있다. 대화가 잘 통한다는 기준에 있어서 가볍게 개그코드가 잘 맞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는 자세가 있어야 정신적인 사랑을 만들 수 있다. 사랑을 하면서 삶의 지혜도 얻고 풍부한 지식도 얻고 또, 사랑에 상처받더라도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사랑, 서로를 안정적으로 묶어주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은 정신적인 탐구와 사색이 만들어내는 사랑이다. 정신적인 출산을 낳아 ‘아름다움’ 자체를 추구하는 사랑이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할 진정한 사랑의 방향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소크라테스가 사유했던 사랑에 대해 한 부분을 소개하고 기말 페이퍼를 마치려고 한다.

“아름다움 자체를 바라봄으로써만 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아름다움을 한 번 보게 되면, 황금이나 화려한 의복이나 아름다운 소년이나 청년 따위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면 당신은 곧 황홀해지고 말거예요.”(플라톤의 대화편, p.292)